

# 민주·30야 선거제 개혁 '신속처리안건' 검토

〈패스트트랙〉

###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회동...한국당 제외 4당 공감대 민주 "사법개혁·유치원 3법 등 공조"...비례제 방식 관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막대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3당 지도부는 19일 마포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위민서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계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계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

이 참석했다.

특히 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3당 조찬 모임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장단점과 민주당의 의도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20대 국회가 한

국당 대 나머지 정당의 구도로 짜이면서 국회가 파탄으로 갈 수 있어서 쉽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가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선 오는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최소 1~2주 가량 협상을 시도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 신속처리안건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카드가 현실화하려면 민주당과 야3당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관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재판부, 증거도 없이 김경수 구속"

### 민주당 기자간담회... 전문가와 1심 판결 부당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차장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사-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사-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인 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도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지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김 드루킹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사-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태극기 부대 딜레마'

### 전대 연설회마다 고성·욕설에 정당정치 품격 저하

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대부분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태극기 부대가 전대 흥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동연설회마다 대거 참석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면서 정당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패배하면서 일부 극단적 지지층 결집에만 매진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조금씩 보이는 한국당 일각의 세력이 우경화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태극기 부대는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로 이어 지난 18일 대구·경북(TK) 지역 연설회에서도 1000명 이상이 운집해 다른 후보의 연설 도중 욕설을 퍼붓고 고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면서 정당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패배하면서 일부 극단적 지지층 결집에만 매진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조금씩 보이는 한국당 일각의 세력이 우경화로 기울고 있다는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9일 오전 국회 의정점견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회동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문희상 의장 "국회에 민심의 쓰나미 올 것"

###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상화 논의 또 실패

여야는 19일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정점견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시간가량 비공

개 회동을 이어갔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 이었고, 나머지 원내대표들은 각 당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열어놓고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그러저저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를 대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후 4시에 만나 이견을 좁히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어 민생·개혁방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2월 국회가 안 된다면 최소한 3월 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합의해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내대표들만의 국회"라며 "국회를 계속 열지 않으면 민심의 쓰나미 물려올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며 "5·18 망언" 수도도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토론회에서 정학균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전략'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업의 적응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오히려 기존의 관행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

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형호 온난화대응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적응 신소득 작물 육성 및 향후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재배가능한 아열대 작물과 재배가능지역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농업관련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문 의: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    ↓

식후 2배속식 ~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한달분 더 드립니다

상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저수지 접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편한생활 적합 대지 268㎡ 3300만원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영암읍 학송리 농림지 담(목담) 24694㎡ 조용한생활적합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로·다세대부지 균형 앞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건물 426㎡ 요양시설 적합 5억2천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청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북구 북동 금남로 47억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내수목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 여수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접
- 일반상업지역-9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회사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4-7400